

금속노조, 2018년 중앙교섭 임단투 시동

15일, 금속산업사용자 협의회에 4대 요구 전달...전체 사업장,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



금속노조가 3월 15일 금속노조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에 2018년 중앙교섭 요구인을 전달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자부도 같은 날 중앙교섭 요구인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요구안으로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상사 지속 생명 안전업무 정규직 사용 ▲성폭력 예방과 금지 등을 내걸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월 3일 14시 노조 4층 회의실에서 2018년 1차 중앙교섭 검상간례를 연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는 금속노조 모든 교섭단위에서 내건 통일요구다. 노조는 전체 사업장 사측에 2018년 10월까지 노사가 함께 전국 단위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를 던졌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1만 원을 제시하고,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아주노동자를 포함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요구인을 내놨다.

노조는 상시(4)속(장)명(안)전(업)무(노)동(자) 정(규)직(으)로(전)환(을) 요(구)했(다). 회사는 2018년 안에 구체

방안을 제시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과 금지 요구는 성폭력 폭언폭행을 정의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안을 규정해 시행하자는 신설 요구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3월 15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중앙교섭 요구인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을 길게 가져갈 생각이 없다. 노사 쟁점에 대해 집중 교섭을 하자”라는 생각을 밝혔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노조는 원활한 교섭을 위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회장과 교섭 대표가 다른 상태를 유지하는 행태는 노사 간 실랑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발언을 마친 뒤 요구인 전달 장소에서 퇴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중앙교섭에 앞서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이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노조파괴 과정 중사측을 위해 지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이날 요구인 전달 자리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임의단체가 아니라 총회를 거쳐야 한다. 마음대로 임원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어려움 없이 교섭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회원사에게 불이익하게 교섭을 이끌고 가지 않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은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발표를 앞두고 회장 문제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에 진지하게 고민해하기를 촉구한다”라며 “KEC 노조파괴로 구미지부장이 분신했다.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한다”라고 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정일부 정책실장은 사용자협의회에 요구인을 전달한 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상임이사와 올해 교섭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에 유일 교섭단체 조항과 교섭 기간 등을 바꾸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일부 정책실장은 “노동조합은 사측의 공식 요구를 받지 않고 있다. 필요한 의제가 있다면 실무협의를 통해 노사 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채우는 중형조선소 구조조정, 문재인 정권 산업·노동정책 민낯 드러내”

성동조선·STX조선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조선산업 대책, 금속노조와 정부 교섭하자”

금속노조가 3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자조선산업 죽이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 폐기, 성동조선·STX조선 정상화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지회와 STX조선지회, 현대중공업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대우조선노조,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등 조선업종노조연대 노동자와 경남지부 조합원 등 1,600여 명 노동자가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가 3월 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STX조선은 현장직 70%를 해고하는 조건으로 존속시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 조선노동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조는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에 조선산업 대책을 놓고 교섭과 면담을 요구한다”라며 “거부하면 4월 4일부터 대규모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이판사판이다. 금속노조가 4월, 5월 정



부와 담판을 짓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정부가 시간만 끌더니 노동자 등에 칼을 꽂는 구조조정안을 내놔다고 분노했다.

강기성 성동조선지회장은 “여러 조선업 관련 대책이 나왔지만, 중형조선소 대책은 없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살아갈 길이 막혔다”라며 “정부는 대기업의 수주는 허용하고, 성동노동자가 현장에 돌아갈 길은 철저히 막았다. 조선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민철 STX조선지회장은 “3,600명의 노동자가 1,400명으로 줄었다. 정권과 채권단은 사람들

더 자르는 자구인을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고민철 지회장은 “조선소 현장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우려는 일자리 하향 평준화 시도다. 정권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민주당 정권이 조선산업을 망친 전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홍지부장은 “성동조선과 STX조선지회 대표자들이 느끼는 무거운 짐을 경남지부장과 금속노조 위원장이 나눠지겠다. 두 조선소 동지들을 결코 허망하게 내팽개치지 않겠다”라고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는 구조조정안을 거부하는 의미로 ‘구조조정’이라는 글자를 적은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조선 노동자들은 정부청사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성동조선지회와 STX조선지회 대표자들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남은 해고자, 단식 지부장 밟고 복직 못 한다”

쌍용차, 해고자 8명 선별복직 일방통보...지부장, “마지막 경고다. 복직 구제 방안 내놔라”

쌍용자동차가 해고자 복직 실무교섭 진행 중 해고자 여덟 명 선별 복직을 일방 통보했다. 개별 면접을 통보받은 해고자들은 ‘들러리 복직’이라고 반발하며 면접을 거부했다.

쌍용차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26명의 인력 충원계획을 발표하고, 여덟 명을 해고자 몫으로 배정했다. 회사는 복직 인원의 두 배수인 열여섯 명에게 면접을 개별 통보했다.

면접을 통보받은 해고자들은 “우리 눈앞에서 말리기는 지부장을 밟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남은 해고자를 밟고 복직해야 하는 상황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시양’ 한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3월 15일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서 ‘사측의 일방 통보에 놓이는 들러리 복직 거부 기자회견

을 열었다. 지부는 “지부장이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키고 단식하며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지부를 무시하고 해고자 개별 면접을 통보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부는 “우리 요구는 2015년 합의한 복직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다. 회사가 약속한 기한이 8개월이 지났는데 회사는 열여섯 명 해고자에게 ‘의자 놀이’를 시키려 한다”라고 분노했다.